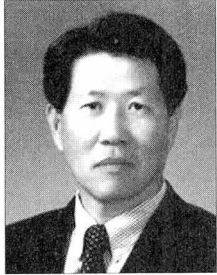




##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⑪



육완방 교수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장

**한** 국사료산업이 1960년대 관련법 제정과 함께 발전해 온 과정을 돌아  
켜 보면 초기 변변한 사료자원 하나 없는 맨땅에서 미국 PL480 프  
로그램(미국 잉여농산물공여계획)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이  
들어오고 퓨리나나 카길 등 한미합작 배합사료회사가 설립되면서 근대적인  
사료산업이 시작되었으니 결국 배합사료원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사료산업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정부의 배합사료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식품가공회사  
들이 대규모의 배합사료공장을 건설하면서 1978년 한국단미사료가공조합에  
서 한국단미사료협회로 승격 발족되었으나 그 이전 시절부터 한국사료산업발  
전을 위해 각 단미사료분야에서 숨은 역할이 작지 않았다 할 것이다. 물론 대  
부분의 사료원료를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해야 하는 한  
계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사료자원개발과 축산입국이라는 커다란  
대 명제 아래 단미사료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즉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고급단백질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식품산업이 지  
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농산, 수산, 축산, 임산 가공 부산  
물 등이 발생하였으며 단미사료업계에서는 이를 알뜰하게 수집, 가공하여 배  
합사료 원료로 공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초기에는 영양자원을 확보한다  
는 단순한 취지였으나 지금은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순환축산이라는 큰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되었음을 알고 보면 한  
국단미사료산업의 역할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 사료의 위생과 안전이 사료산업의 큰 과제가 되면서 각종 단미  
사료원료가 산업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광우병 등의 발생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생산비 증가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점은 단미사  
료업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식가축의 기초사료로서 모든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인 건초는 조제  
시기, 방법, 초종, 품종, 혼파비율, 날씨 등에 따라 그 변이가 일반농산물과는  
달리 대단히 심하여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건초 수입국인 일본만 하더라도

# 한국단미사료산업이 걸어 온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조사료의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여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초 품평회도 없고, 공개적인 건초시장도 없으며, 수입된 건초가 수입업자와 농가의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건초가 농가로 가서 바로 급여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오직 수입업자의 능력과 농가의 운에 따라 좋은 건초 또는 나쁜 건초(품질대비 가격)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절대 경쟁력 있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TMR 공장이라고 불리는 공동배합 사료공장과 일부사료회사에서 “완전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평가와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건초의 평가는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특성이 동시에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료산업 성장은 축산물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최근 축산물 소비 둔화와 함께 FTA 체결 등으로 수입축산물이 상당 부분 국내 축산물 소비를 점유하게 되면서 국내 사료산업도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배합사료 가격 경쟁이 아닌 위생적이고 양질의 축산물을 먹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좇아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단미사료를 새롭게 개발하여 수입축산물과 경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조사료나 각종 기능성 첨가제들도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한 옥수수 등 곡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바람이 단미사료 수급과 사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옥수수 가격 상승과 함께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던 국산동물성유지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합사료 업계와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들이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단미사료협회와 한국사료협회가 업무협조를 위한 Task Force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축산물생산과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미사료협회의 노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만큼 단미사료협회 내에 시대흐름에 맞는 연구 및 기획부서를 만들어 회원사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흥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제를 갖추는 것도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배합사료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자의 역할에서 한 차원 높은 단미사료협회의 기능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유동준 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여기까지 단미사료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왔으니 앞으로 30년은 우리의 후배들이 더 발전적으로 우리나라 단미사료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㉟